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요인, 정서요인, 부모요인, 사회·환경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조옥선¹, 석말숙^{2*}

¹한세대학교 간호복지학부 겸임교수, ²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The Effect of Individual Factors, Emotion Factors, Parents' Factors,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on Career Decision Making of Adolescents with Multicultural

Ouk-Sun Cho¹, Mal-Sook SuK^{2*}

¹Lecture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ansei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Nazaren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정서·부모·사회·환경적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자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아버지가 한국인인 다문화청소년 1,146명을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7차 자료에서 추출해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했다. 연구결과는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사회·환경적 요인인 학교생활적응 및 다문화 수용이 진로미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요인으로 우울증과 부모요인인 방임이 진로미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미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로미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 다문화청소년, 진로미결정, 개인요인, 정서요인, 부모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dividual, emotional, parent,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on career decision-making in multicultural youth. To this end, 1,146 multicultural adolescents who were enrolled in high school and whose fathers were Korean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analysis as data for the 7th year of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MCAPS). As a result, first,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which was an individual factor,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which are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positive effect career decision-making. Second,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as an emotional factor and neglect as a parent factor ha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stress as an individual factor,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as a parent factor did not affect career decision-making.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d basic data on how to deal with each factor and prevent multicultural youths from wandering in advance without deciding their career paths.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 Decision Making, Individual Factors, Emotion Factors, Parents' Factors,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Revised and supplemented the thesis participating in the Digital Policy Society's Autumn Conference.

*Corresponding Author : Mal-Sook Suk(swmalsuk@kornu.ac.kr)

Received November 25, 2021

Revised December 17,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1. 서론

최근 전 세계는 급격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사회구성원의 언어·문화·사회적 배경 측면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하는 체계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결혼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2000년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학령기를 맞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20179년보다 2020년 7.4% 증가하여 147,378명을 차지한다[1]. 여성가족부 [2] 조사결과에 의하면, 만 13세 이상 다문화 청소년들은 진로, 진학 및 직업(직업 선택, 보수 등)에 대한 고민이 25.3%로 나타났고, 진로·진학취업에 대한 고민이 48.2%로 대략 1.9배 정도 더 늘어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진로의식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진로의식발달은 진로미결정, 진로관여성, 진로독립성, 진로성향성, 진로타협성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3,4]. 진로미결정이란 선호하는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못한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아직 결정하기가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사회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수반되는 다양한 변인들 중 어떤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체계들의 구조와 환경을 분석하고 그들과 환경체계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유발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의 생태체계인 개인, 정서, 부모, 사회환경 요인에 입각하여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고 진로미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은 비다문화청소년과 다른 외모와 언어이해력의 부족으로 친구 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및 자신에 대한 만족도 등이 많이 저하될 것이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져 사회

적 위축감과 고립감을 겪게 되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현상으로써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진로미결정에서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견해로써 다른 사람과 자신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이고[5] 자신의 행동과 이상적 자기의 일치정도를 분석하여 얻어지는 자기 가치에 대한 개인적 판단으로[6] 행동의 중요 결정요인이다. 학업우수 여학생의 진로장벽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면 진로장벽인 진로미결정이 낮춰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7].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 사이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자아존중감과 진로미결정(진로장벽)은 부적인 상관관계 및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8]. 자아존중감은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변수와 반응변수로 활용되었고 원만한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한다[9,10]. 즉,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미결정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높은 자아존중감은 이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반대로 현재의 고민이나 걱정거리 등이 스트레스를 촉발하고 진로미결정 상태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트레스는 다문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경험할 수 있고, 현재 겪고 있는 걱정거리 및 고민과 관련이 있다. 또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강도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차이를 발생하며, 때론 어떤 사람에게는 막대한 부적응을 낳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11]하여 자신의 발전 기회로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문화 청소년은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 성적이 낮고 대학 진학이나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 최종적으로 진로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진로미결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성취 및 학업적응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진로미결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으며, 이후 다문화 청소년의 직업 선택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관련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서요인인 우울감은 진로미결정에 개인요인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이다. 우울감은 일상에서 모

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변화이지만, 이런 기분 상태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은 슬픔, 외로움, 죽음, 무관심과 무흥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유발하기도 한다[12]. 우울감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연구한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정서적 변인인 우울감은 진로발달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고 진로미결정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성격 특성들이 진로미결정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보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우울감은 사회적 지원과 자기통제력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 중 부모의 방임은 자녀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요인으로 알려져 왔고[13],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등 가정의 배경 변인에 따라 자녀와 소통의 부재를 일으키면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14], 반면에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어를 획득하여 자녀와 자주 학교생활이나 진로에 관한 대화를 하게 되면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부모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방임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처럼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부모요인도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었다. 이와함께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환경요인도 빠질 수가 없다.

사회환경요인인 학교생활적응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도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먼저 다문화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포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교생활에서 언어, 또래관계, 낮은 학업성적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16].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과 진로태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조절효과를 본 연구결과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할수록 진로미결정성이 줄어 든다고 하며[17], 학교생활적응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미결정을 연구한 결과는 미미함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개인요인인 자아존

증감과 스트레스, 정서요인인 우울감, 부모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방임 및 사회환경요인인 학교생활적응과 다문화수용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함을 볼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진로미결정을 살펴보지 않고 주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도 등에 관한 연구를 주로 다루어져 왔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이 과업이 미성숙하면 이후 성장발달에 혼란을 겪게 되며, 미래의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우리 문화와 언어, 학업 적응이 낮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정은 발달과업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를 검증하여 그들의 진로발달 정책과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요인(자아존중감, 스트레스)은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요인(우울감)은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요인(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임)은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4]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환경요인(학교생활적응, 다문화 수용성)은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개인요인, 정서요인, 부모요인, 사회환경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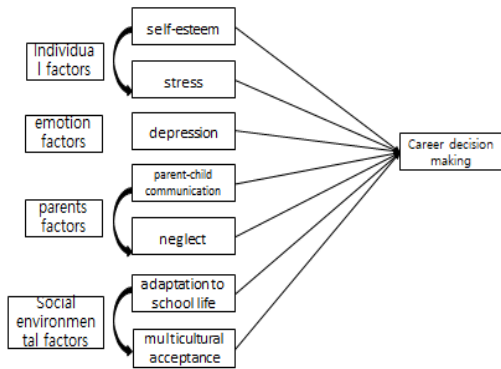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MCAPS) 7차년도 자료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인 다문화 청소년 1,146명을 분석대상자로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WIN23.0을 이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요인(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정서요인(우울감), 부모요인(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임), 사회환경요인(학교생활 적응, 다문화 수용성)이 진로미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2.3 측정변수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정서요인인 우울감, 부모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방임, 사회환경요인인 학교생활적응과 다문화 수용성 및 진로태도 변수로 구성하였다. 우울감, 진로태도 및 삶의 만족도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생활적응 변수 문항만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2.3.1 진로미결정

진로미결정 척도는 Lim & Han[18]이 개발한 문항 중 4문항을 발제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 수록된 것을 활용하였다. 질문문항 중 '나는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았다'와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학업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문항은 역변환하였다. 진로미결정 값이 높을수록 향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불명확한 결정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미결정 변수의 Chronbach's α 값은 .854로 나타났다.

2.3.2 개인요인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가 개발한 문항 중에서 자아존중 정도 관련 항목 9문항을 발췌하였다. 자아존중감은 평균값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인 Chronbach's α 값은 .870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척도는 현재의 고민 및 걱정거리와 관련된 지표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Yoo et al.[19]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는 평균값이 높을수록 현재 고민과 걱정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인 Chronbach's α 값은 .849로 나타났다.

2.3.3 정서요인

우울감은 Kim et al.[20]이 개발한 문항을 Lee et al.[21]이 수정·보완한, 우울한 정도와 관련된 항목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우울감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우울감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인 Chronbach's α 값은 .914로 나타났다.

2.3.4 부모요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님과 학교생활, 나의 흥미와 적성, 미래직업, 대학 및 삶의 가치관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다문화패널에서 개발한 문항 중에서 5문항을 발췌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의 소통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의 신뢰도인 Chronbach's α 값은 .887로 나타났다. 방임은 부모양육태도를 묻는 문항 중 방임과 관련된 7문항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Lee et al.[21]가 아동학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자녀를 방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임 변수의 Chronbach's α 값은 .826이다.

2.3.5 사회환경요인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학업 영역,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와 연관된 내용으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업 영역은 Kim[22]이 개발한 척도 문항 중에서 4문항을 발췌하고, 교우관계는 Hang & Kim[23]이 수정·보완한 문항을 다문화패널 연구진이 추가하여 4문항으로

만들어 활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Jung[24]이 수정·보완한 3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구성은 전체 11문항이고 평균값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 변수의 Chronbach's α 값은 .896이다. 다문화 수용성 척도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경우 수용 정도와 관련된 항목과 연관된 내용으로 Yang & Jeong이 개발하고 Lee et al.[21]이 수정·보완한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다문화 수용성은 평균값이 높을수록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경우에도 수용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수용성 변수의 Chronbach's α 값은 .885이다.

3. 연구결과

3.1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의 비율이 48.3%이고 여학생의 비율은 51.7%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문대졸(2-3년 대학)은 25.7%,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이상은 15.7%, 중졸 이하는 10.9%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 국가를 보면,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1,146)

Variable	Section	N	%
Gender	Male	554	48.3
	Female	592	51.7
Mother's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125	10.9
	High school graduated	544	47.5
	College graduated	295	25.7
	Higher than university	180	15.7
Mother's Nation	China	289	25.2
	Japan	424	37.0
	Philippines	299	26.1
	Other (Vietnam, Thailand etc.)	134	11.7
	Grade Satisfaction	Satisfied	458
	Satisfied not at all	688	60.0
Expected Education	Below high school	269	23.5
	Higher than university	877	76.5

일본이 3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 필리핀이 26.1%, 중국(한족, 조선족, 기타)은 25.2%, 기타(베트남, 태국, 기타)는 11.7%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은 주관적으로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지 않

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60.0%,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40.0%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다문화청소년은 희망하는 학교 졸업 수준을 전문대 이상(76.5%)이라고 응답했고, 고등학교 이하는 23.5%로 낮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어머니의 학력에서 결측이 존재했다.

3.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Table 2 참조),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의 평균값=3.819, sd=.640, 스트레스의 평균값=2.197, sd=.522, 정서요인인 우울감의 평균값=1.728, sd=.553으로 나타났다. 부모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평균값=3.627, sd=1.057, 방임의 평균값=1.731, sd=.506, 사회환경요인인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값=3.764, sd=.600, 다문화 수용의 평균값=3.168, sd=.537, 진로미결정의 평균값= 2.293, sd=.681로 나타났다. 평균값이 가장 높은 변수는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이고 가장 낮은 변수는 정서요인인 우울감이다. 각 변수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과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①	1.56	5.00	3.819	.640	-.193	-.144
②	1.00	4.00	2.197	.522	-.027	-.008
③	1.00	3.80	1.728	.553	.368	-.436
④	1.00	4.00	2.385	.726	-.198	-.394
⑤	1.00	5.00	3.627	1.057	-.535	-.419
⑥	1.00	3.57	1.731	.506	.310	-.495
⑦	1.36	5.00	3.764	.600	-.236	.219
⑧	1.00	4.00	3.168	.537	-.140	.432
⑨	1.00	4.00	2.293	.681	.019	-.365

① self-esteem, ② stress, ③ Depression, ④ parent-child communication, ⑤ neglect, ⑥ adaptation to school life, ⑦ multicultural acceptance, ⑧ Career decision-making

3.3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하고자 하는 도구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보면(Table 3 참조), 진로미결정은 자아존중감($r=-.314, p<.01$), 부모-자녀 의사소통($r=-.158, p<.01$), 학교생활적응($r=-.299, p<.01$), 다문화 수용($r=-.179, p<.01$)와

모두 부(-)적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진로결정정은 스트레스($r=.197, p<.01$), 우울감($r=.247, p<.01$), 방임($r=.186, p<.01$)과 모두 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Coefficie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1							
②	-.453*	1						
③	-.618*	.589	1					
④	.270**	-.085	-.177*	1				
⑤	-.464*	.304	.376	-.296*	1			
⑥	.536	-.324	-.439*	.267	-.347*	1		
⑦	.242**	-.075	-.109*	.113	-.259*	.297	1	
⑧	-.314*	.197	.247	-.158*	.186	-.299*	-.179	1

① self-esteem, ② stress, ③ Depression, ④ parent-child communication, ⑤ neglect, ⑥ adaptation to school life, ⑦ multicultural acceptance, ⑧ Career decision-making

3.4 다중회귀 분석결과

3.4.1 스트레스, 우울감, 부모방임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인 성별, 모 학력, 학교성적만족도 및 희망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에 적용한 통제변수는 모두 더비 변수로 처리해 활용하였다. 진로미결정에 부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요인, 정서요인, 부모요인들의 영향력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Table 4 참조).

분석결과,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은 모두 진로미결정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요인인 우울감($\beta=.202, t=3.730, p<.001$)과 부모요인인 방임($\beta=.152, t=3.090, p<.01$)은 진로미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요인인 스트레스는 진로 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이 다

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은 우울감이 높으면 자신의 진로결정을 못하고 미결정 상태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가 진로미결정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3.6%를 보이고 모형의 적합성을 보는 F값은 7.8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다중공 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두 공차한계가 0.1보다 크고 VIF 값은 3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stimated Model

Variable	B	β	S.D	t
Gender	.088	.069	.057	1.524
Mother's Education 1	.017	.009	.106	.161
Mother's Education 2	.104	.081	.081	1.281
Mother's Education 3	.012	.009	.087	.141
Grade Satisfaction	-.116	-.050	.103	-1.127
Expected Education	.018	.013	.061	.294
stress	.253	.202	.068	3.730***
Depression	.094	.078	.064	1.460
neglect	.194	.152	.063	3.090**
R ²	.136			
adj. R ²	.119			
F	7.826***			

p<.01, *p<.001

3.4.2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생활적응, 다문화 수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인 성별, 모 학력, 학교성적만족도 및 희망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에 적용한 통제변수는 모두 더비 변수로 처리해 활용하였다. 진로미결정에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개인요인, 정서요인, 부모요인, 사회환경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Table 5 참조).

분석결과,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은 모두 진로미결정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요인인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beta=-.239, t=3-4.596, p<.001$)과 사회환경요인인 학교생활적응 ($\beta=-.132, t=-2.476, p<.05$) 및 다문화 수용($\beta=-.189, t=-4.092, p<.001$)은 진로미결정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부모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계수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의 진로결정을 못하고 미결정 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가 진로미결정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9.4%를 보이고 모형의 적합성을 보는 F값은 10.7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두 공차한계가 0.1보다 크고 VIF 값은 3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stimated Model

Variable	B	β	S.D	t
Gender	.048	.038	.055	.875
Mother's Education 1	-.055	-.028	.103	-.530
Mother's Education 2	.055	.043	.079	.700
Mother's Education 3	-.013	-.009	.085	-.156
Grade Satisfaction	.029	.012	.102	.279
Expected Education	-.056	-.041	.060	-.922
self-esteem	-.254	-.239	.055	-4.596***
parent-child communication	-.016	-.025	.028	-.566
adaptation to school life	-.143	-.132	.058	-2.476*
multicultural acceptance	-.221	-.189	.054	-4.092***
R ²	.2194			
adj. R ²	.176			
F	10.710**			

p<.01,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 개인, 정서, 부모, 사회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특정 변인만을 선정하여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거나[23],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로미결정 방해요인을 탐색한 경우가 많았다[24].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고 다수의 표

본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첫째,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상태를 낮추는 긍정요인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문화청소년은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에 다른 청소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겸비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들이 방과 후 또는 특활시간에 모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과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활용해 간단하게 노래, 연극 등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한다.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할수록 진로미결정 상태는 더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문화청소년들의 내재 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고민 및 걱정거리 등을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자 한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요법과 연극, 뮤지컬, 댄스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공연까지 승화한다면 다문화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어 진로미결정 상태가 줄어들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정서요인인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진로 선택을 결정하지 못한 진로미결정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을 줄여 진로정책성과 어떤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을 낮출수 있도록 인지치료 집단상담 운영과 부모 지지 및 담임교사 지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의 방임은 진로미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교우관계, 학업 및 교사관계에 적응을 잘하면 진로미결정도 감소된다고 한 Lee & Kim[2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정을 해소하고 진로결정과 진로정책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개발

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또한 부모로부터 방임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부모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정보와 상담교육이 야간이나 주말을 고려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환경요인인 학교생활적응과 다문화 수용이 진로미결정을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임을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정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교생활적응력과 다문화수용 향상을 함께 고려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실천적 제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요인과 정서요인, 부모요인 및 사회환경요인에 대한 지원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및 부모방임을 낮추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이 더욱 활발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및 부모방임에 대해 가정이나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조기 개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교육진로지도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시, 이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및 부모방임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부모로부터 방임되는 상황을 감소할 수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다문화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 선택, 계획, 결정 등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 및 교육부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이 다각도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학교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고등학교 이후 진로 준비 기회를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 지역의 사례관리 팀을 구성하여 진로미결정 다문화청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각 지역사회에 전문기관과 학교 간의 연계성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 및 통합적 관점을 둔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과 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

보면, 특정 대상자를 분석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집단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학업중도자까지 포함한 다문화청소년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독특한 발달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년을 구분하고 중도탈락자도 포함하여 그들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학교안에 있는 집단과 학교 밖에 있는 집단 간의 단계별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의 2017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횡단연구로 진행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정을 포함한 개인요인, 정서요인, 부모요인 및 사회환경요인도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어느 한 시점에 국한된 횡단 연구가 보다는 종단연구를 통해 다각도로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시간의 차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요인, 정서요인, 부모요인, 진로미결정의 추이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Korea Nazarene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21.

REFERENCES

- [1] 『2020 Basic Education Statistics Highlights』, Sejong: The Department of Education.
- [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9). <http://www.mogef.go.kr/>
- [3] J. H. Lee. (2013).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tion*, 13(3), 133-154.
- [4] H. J. Kim & K. T. Park. (2010). A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Need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Youth : A Comparative Analysis with Normal Family Yout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49(1), 93-128.
- [5] H. Cho & G. Y. Lee (2006). Self Esteem and

-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2), 163-173.
- [6] S. Stuart. (1983). *Principle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St. Louis: Mosby.
- [7] S. K. Yoo, H. S. Lee, M. H. Hwang & S. H. Hong. (2007). A Study on the Structural Model of Parental Attachment, Gender Roles, Self-Esteem and Career Barrier : Academically Talented Female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8(3), 357-380.
- [8] G. Heo. (2012).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areer Barrier in Adolescents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1), 119-134.
- [9] I. J. Chung. (2007).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Their Predictors. *Studies on Korean Youth*, 18(3), 127-166.
- [10] C. B. Cho & D. K. Kim. (2010).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Adap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4), 207-229.
- [11] J. Block & R. W. Robins. (1993). A Longitudinal Study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Self-esteem from Early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4, 909-923.
- [12] E. I. Jeong. (2007). The Effect of Stress and Everyday Creativity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Decision-mak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19(2), 143-162.
- [13] A. Rossi, A. Panzeri, G. Pietrabissa, G. M. Manzoni, G. Castelnuovo & S. Mannarini. (2020). The Anxiety-buffer Hypothesis in the time of COVID-19: When Self-esteem Protects from the Impact of Loneliness and Fear on Anxiety and Depression. *Frontiers in Psychology*, 11. DOI: 10.3389/fpsyg.2020.02177.
- [14] G. M. Yang & J. H. Park. (2014). A Study on the Longitudinal Survey and Policy Plan of Multicultural Youth: Basic Analysis Repor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150.
- [15] M. E. Haskett, K. Nears, A. Ward & V. McPherson. (2006). Diversity in Adjustment of Maltreated Children: Factors Associated with Resilient Functioning.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796-812. DOI: 10.1016/j.cpr.2006.03.005
- [16] S. J. Ju & S. S. Cho.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Mentoring Program of Ecological Systemic Perspective on the Career Maturity and School-life Maladjustment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famil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7, 51-82. UCI: I410-ECN-0102-2018-300-003919084
- [17] S. C. Park & M. S. Lee. (2021).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s -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829-843. DOI: 10.37727/jkdas.2021.23.2.829
- [18] K. H. Lee & J. C. Han. (1997). Tools for the Feasibility of Career Attitude Measurement Tool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8, 219-255.
- [19] M. Rog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0] G. I. Kim, J. H. Kim & H. T. Won. (1984). *Summary of Simple Psychiatric Examination*. Seoul: Central Appropriateness Research Institute.
- [21] K. S. Lee, H. J. Park, J. Y. Lee, J. Y. Kim, H. J. Kim & Y. K. Han. (2011). *The Annual Report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2] J. N. Kim.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hool Adjustment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 and High School Student-Short Form.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5(3), 497-517.
- [23] Y. J. Hwang & K. K. Kim. (2006). Determinants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General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3), 181-203. UCI : G704-001276.2006.16.3.016
- [24] H. S. Jung. (2009). *The Influence of Attachment to Mother and School Life Adjustment son Elementary School Students's Optimism*,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Yongin.
- [25] I. Y. Ahn et al. (2016).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in Monocultural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7(4), 306-311. DOI: 10.5765/jkacap.2016.27.4.306
- [26] A. R. Lee & B. Y. Kim. (2015). Change of Career Indecision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Related Factors: Focus on Gender, Extrinsic Job Value, and Satisfaction of Career Counseling Effective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5), 79-101. UCI : G704-000387.2015.22.5.010

조 옥 선(Ouk-Sun Cho)

[정회원]



- 1987년 2월 : 충남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석사)
- 2016년 2월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6년 3월 : 한세대학교 간호복지학부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다문화 사회복지 등
- E-Mail : mongchimi12i@hanmail.net

석 말 숙(Mal-Sook Suk)

[정회원]



- 1987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8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1998년 12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School of Social Welfare (M.S.W)

- 200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4년 9월~현재 :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장애, 가족
- E-Mail : swmalsuk@kornu.ac.kr